

다시 열리는 국제선... 항공사 여름특수 기대에 “시기상조”

백신접종자 격리면제 허용국 늘어 내달부터 국제선 본격 운항 재개 양국 격리면제 관·사이판 등 운항

전체 노선중 재개 노선 일부 불과 탑승률 보장안돼 수익내기 어려워

항공업계가 이르면 올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국제선 운항을 확대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휴가 특수’를 기대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다음 달부터 국제선 운항을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격리 면제를 허용하는 백신 범위를 넓히고 있다.

관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도 격리를 면제하기 시작했다. 관은 그동안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백신 모더나, 화이자, 안센 접종자만 격리 면제했다. 사이판도 이달 초부터 추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의 격리를 면제했다.

이 같은 양국의 격리 면제 조치에 국내 항공사들은 관, 사이판 노선의 운항 재개를 계획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24일부터 사이판 노선을 주 1회 운항



지난 11일 인천공항 출국장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한다. 지난해 3월 코로나로 운항을 중단한 지 약 16개월 만의 재운항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운항 재개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티웨이항공은 다음달 29일과 31일 순차적으로 사이판, 관 노선 운항을 다시 시작한다. 또한 에어서울은 8월 12일부터 인천-관 노선을 주 2회 운항한다. 에어부산은 9월 관 노선 운항을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국제선 운항에 따른 큰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국제선 전 노선 중 일부 운항 재개일 뿐이고, 아직 백신 접종자가 많지 않아 탑승률을 보장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올해 여름 휴가철 역시 특수 수를 누리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앞서 지난해 여름 휴가철(7-8월 기준)도 국제선 여객이 대폭 줄었던 바 있다. 지난해 해당 기간 국제선 여객

수는 28만 5,223명이었다. 코로나 전인 2019년 동기 1,077만 8,787명 대비 약 97% 줄어든 것이다.

또한 최근까지도 역시 국제선 여객 수는 반등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기준

국제선 여객 수는 13만 833명이다. 코로나 이전 2019년 동기엔 505만 7,685명을 기록했다.

올여름 휴가철에도 항공사는 국내선, 특히 제주 노선에 공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항공사는 국내선 대상 서비스 강화 및 프로모션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LCC(저비용 항공사) 최초 국내선에 비즈니스 좌석을 도입했다.

또, 진에어는 카드사와 제휴해 전 노선 대상 할인 쿠폰 발급 행사를 연다. 에어서울은 NS홈쇼핑과 협약을 맺고,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기내에서 홈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항공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선을 올여름에 바로 띄운다고 해도 얼마만큼 모객이 될지도 의문이다. 국제선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4분기나 돼야 수익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중국 생산자물가 급등세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중 생산자물가가 13년 만에 최고치 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세 등 기인 국제유가가 2년래 최고... 지속 전망

중국 생산자물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견조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2년래 최고치로 치솟는 등 원자재 가격이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다.

20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중국 생산자물가(PPI) 오름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 5월에는 9% 상승했다. 2008년 9월(9.1%) 이후 최고치다.

먼저 철광석, 원유 등 수급 불균형이 부각되며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한은은 “철광석 가격이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와 브라질 광산 생산 차질, 호주와의 갈등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분기 들어 급등했다”며 “국제유가(WTI)는 오펙 플러스(OPEC+)가 합의한 감산 축소 규모를 유지하면서 70달러를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는 70달러 안팎까지 상승했다. 지난 2019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유가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졌다.

한은은 “주요국에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원유수요가 빠르게 회복된 가운데 미국 셰일 생산의 더딘 증가와 이란

원유수출 재개 불확실성 확대 등 공급측 요인도 가세했다”며 “국제유가는 상하방 리스크가 상존하지만 일부 IB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도 생산자물가를 들썩이게 했다.

한은은 “중국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투자 및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견조한 성장세 지속중”이라며 “코로나19 백신보급을 확대와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ARP) 등으로 대외 수요도 견조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의 1회 이상 접종비율은 지난 2월 말 1.9%에서 3월 말 4.4%, 4월 말 7.7%, 6월 5일 11.5% 등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생산자물가 오름세가 그대로 공산품 수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중국 당국의 생활물가 안정 노력 등으로 중국기업들이 자국 소비자물가로의 전가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윤 보전을 위해 공산품 수출가격으로 전가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최근 당국이 원자재 수입 물가 안정을 위해 위안화 강세를 용인한 점도 수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0@

Cello

통합 물류 플랫폼 Cello기반 글로벌 4PL 서비스

Cello 물류서비스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및 최첨단 IT 시스템을 기반으로 물류컨설팅, 해상/항공/육상 운송, 창고 관리 및 통관 처리를 포함하는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계 37개국, 58개 거점, 230여개 사이트를 기반으로 글로벌 물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물류 전문성을 보유한 컨설턴트와 AI, IoT, Blockchain 등 최신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ello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물류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Cello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logistics.samsungsds.com
Cello@samsung.com

SAMSUNG SDS

Realize your vision